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지급기×안심비상벨

올해 5월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난 9월부터 시범적으로 공중화장실 6곳에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가 설치됐다. 또한,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음성인식이 추가된 안심비상벨을 민간 개방화장실 23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글 지선욱(고양시 여성가족과)·김다애(고양시 자원순환과)
사진 여성가족과·자원순환과



비상용 무료 생리대 지급기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지급기 시범적 설치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적 있을 것이다. 최근엔 여성청소년의 갈창 생리대 사연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이런 사연의 언론보도와 미국 뉴욕시의 '무료 생리대 도시 선언' 등 국제 동향에 따라 일회용 위생용품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기존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으로 낙인감을 줄 수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많았다.

쾌적한 환경,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필연적이다. 가까운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여성들의 생필품인 위생용품도 공중화장실에 무료로 비치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시민들의 여성 위생용품 지원 요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성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여성이 긴급히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지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설치된 장소는 청소년과 여성의 이용이 많은 행신도서관, 백석도서관, 대화도서관, 토당청소년수련관, 마두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청청소년수련관으로 총 6개 화장실이며, 향후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를 통해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길 기대해본다.



비상용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 설치 장소

기관	주소	위치
행신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33번길 25-6	3층
백석도서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18	3층
대화도서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9	4층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3층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2층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86	3층

민간 개방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2017년부터 시는 공중화장실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9월 10일부터 기존 터치방식의 안심비상벨에서 음성인식이 추가된 안심비상벨을 민간 개방화장실 28개소에 설치했다.

민간 개방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은 화장실 메인에 설치되는 음성인식으로 위급 상황 시 특정 단어인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에 반응해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장난 등의 오작동 횟수를 파악해 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 직접 연결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허위 또는 장난 신고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허위·장난 신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안심비상벨